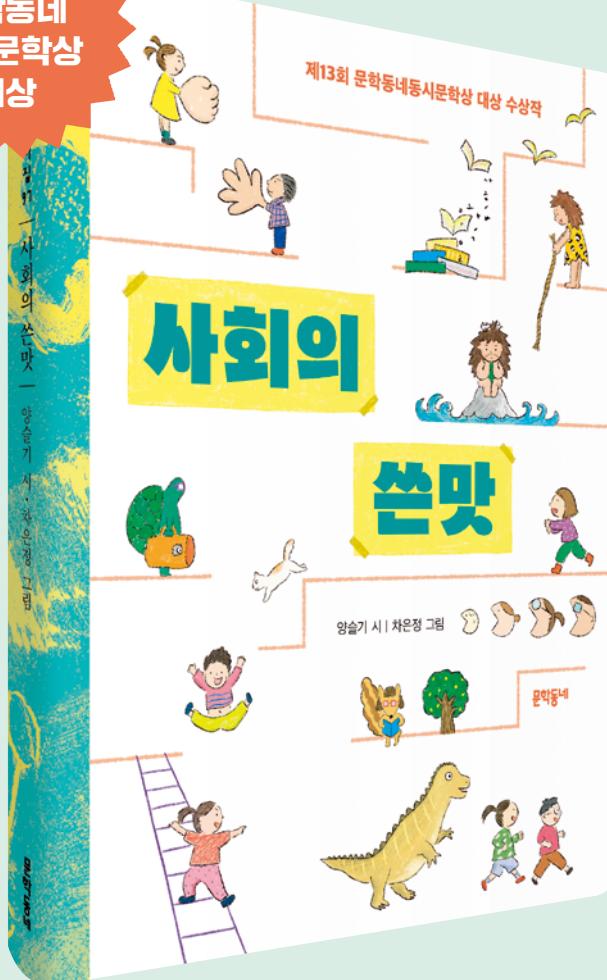


제13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 사회의 쓴맛

양슬기 시 · 차은정 그림 | 문학동네

### 선생님이 교과서에 낙서하지 말랬는데 장우가 국어를 북어로 바꿨다

“마치 유튜버의 교실 현장 중계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_유강희(시인, 심사위원)

“기성의 동시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생생한 말과 몸을 지닌 존재들.” \_김준현(시인, 심사위원)

“다채로운 말들. 그 옆에서 변화무쌍하게 자라는 상상.” \_김개미(시인, 심사위원)

교과서에 낙서를 해 본 적 있나요? 아무도 못 본 상황을 나만 똑똑히 본 적은요?

‘나의 처음’들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시집 『사회의 쓴맛』에 실린 시들을 찬찬히 읽어 보며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려 보고,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연관 지어 보세요.

매일매일 처음을 살아가는 내가 매일매일 소중하듯 어떤 경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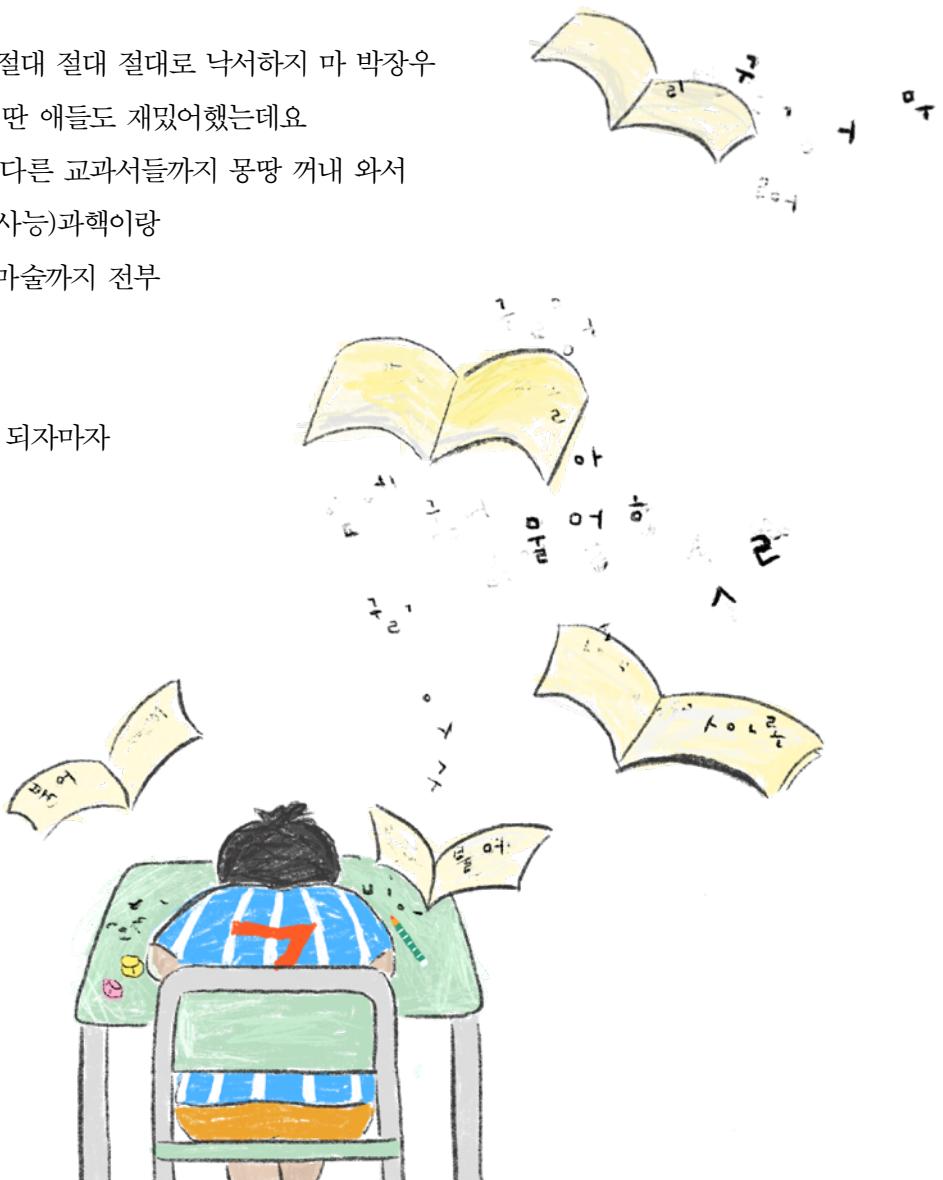
## 사회(의 쓴맛)

선생님이 교과서에 낙서하지 말랬는데  
걸리면 지우개로든 수정테이프로든 박박 지우게 할 거라고 했는데  
장우가 국어를 북어로 바꿨다

장우 국어 책은 북어, (리코더못)불어, 불에(구운삼겹살최고)가 되었다가  
애들이 깔깔깔 웃는 바람에 걸려서  
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 (다리털)긁어, (쫄쫄)긁어, (위대한나님앞에무릎)꿇어가 되었다가  
애들이 네가 뭐가 위대하냐고 빙정대는 바람에 또 걸려서  
박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 (밥)뚝어, (댕댕이)물어!, (내똥)긁어가 되었다가  
애들이 박장우 더럽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또 또 걸려서  
박박박박 지우고  
다시 국어가 되었다

앞으로 교과서 글자 위에는 절대 절대로 낙서하지 마 박장우  
아니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딴 애들도 재밌어했는데요  
결국 장우는 사물함에 있던 다른 교과서들까지 몽땅 꺼내 와서  
(잠)수함이랑 참(치)회랑 (방사능)과핵이랑  
음(치)학(생)이랑 (학교탈출)마술까지 전부  
박박박박박 지웠다

하지만 난 봤다 사회 시간이 되자마자  
장우 사회 책이  
사회(의 쓴맛)이 되는 걸



## 활동1 국어를 북어로

교과서 제목을 바꿔 본 경험이 있나요?

시 속 장우처럼 교과서 제목을 자유롭게 바꿔 보세요.

바꾸고 싶은 교과서

\* 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바꾼 교과서

\* 예: 북어, (잠)수함, 참(치)회, (방사능)과학

바꾼 교과서 이름으로 나만의 교과서 표지를 그려 보세요.

## 선

우리 팀 한 명 저쪽 팀 한 명 넘았을 때  
재혁이가 펠살슛을 던졌다  
저쪽 팀 한 명이 도망가다가 등에 공을 맞고 죽었다  
우리 팀 애들 모두 이겼다고 좋아했다  
나만 빼고

재혁이가 펠살슛 던질 때 나는 봤다  
재혁이 원발이 선을 넘은 걸  
다들 공만 보느라 못 본 것 같지만  
나는 똑똑히 봤다

무효라고 말해야 할까?  
나만 눈감으면 팬찮지 않을까?  
다들 밟고 넘는 선 정도는  
나도 눈 딱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 선이 왜 있지?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왜 있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선, 선, 선만 생각하다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나는 결심했다

\_\_\_\_\_ 하기로





## 결심했다,

## 하기로

시에서 어떤 상황이 그려지고 있나요?

---

---

---

시의 화자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

---

---

---

내가 화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화자라면,

---

왜냐하면,

---

---

---

위에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마지막 연을 완성해 보세요.

선, 선, 선만 생각하다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나는 결심했다

하기로

## 액자 속의 나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돌을 맞이했을 때  
바닷가에 갔을 때  
두발자전거를 탔을 때  
잠자리를 잡았을 때  
파자마 파티를 했을 때

엄마는 휴대폰으로 나를 찍어서  
선반 위 액자 속에 넣어 두었다



내가 너무 밟고 싶은 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만 계속 돌리던 날  
나의 처음들이 선반 위에서 속삭였다

너의  
꽉쥔 주먹  
살짝 벌린 입  
모래가 달라붙은 발바닥  
빨갛게 까진 무릎  
까만 때가 낀 손톱  
양 갈래로 땅은 긴 머리카락

모두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매일매일 처음을 살아갈 네가  
매일매일 소중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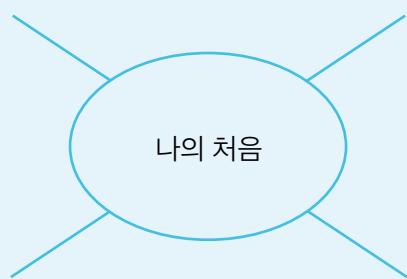


엄마를 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 나의 처음들이 속삭였다

기억에 남는 ‘나의 처음’들을 생각그물로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 예: 처음 먹어 봤던 음식, 처음 가 봤던 곳, 처음 해 봤던 일 등



‘나의 처음’과 관련된 것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표현해 보세요.

\* 예: 매운 떡볶이-화끈거리는 혀바닥, 스케이트-후들후들 떨리는 두 다리 등

‘나의 처음’과 관련된 것	떠오르는 느낌

앞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처음’에 대한 시를 써 보세요.

「액자 속의 나」를 참고하여 짹꿍 시를 써 봐도 좋아요.